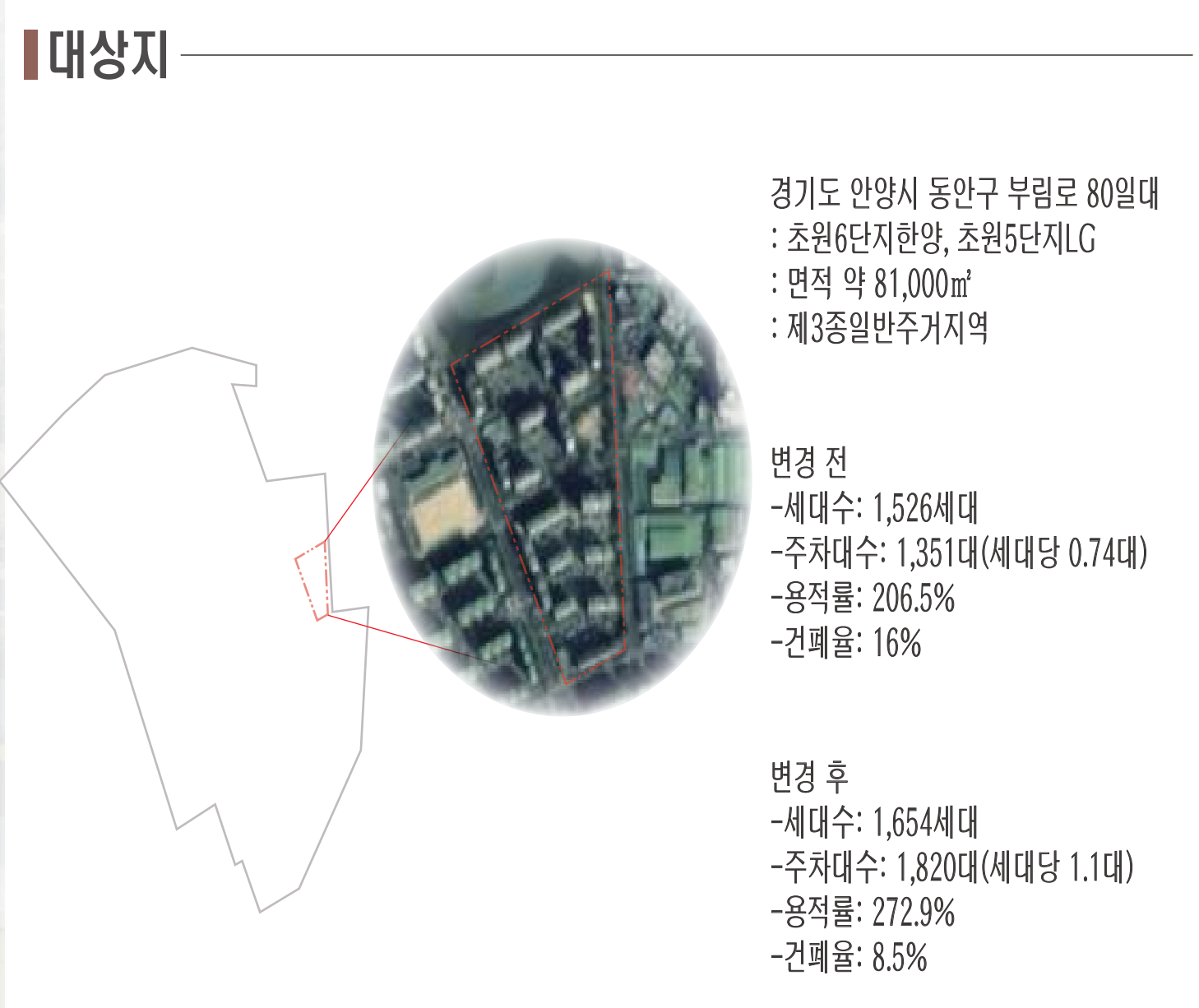




초록을 품고 원을 그리는 연결도시, 초원

열병합발전소와 대상지 사이 녹지를 통해 주민의 삶과 자연이
원을 그리듯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사토를 연결하는 의미

20210303 윤수빈
20210973 김재은
20211412 김성은
20221127 장하나
20221409 이혜원



개요

평촌은 1기 신도시로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안양 - 성남고속도로 등 뛰어난 교통 인프라를 갖춘 도시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아파트의 노후화, 주차 공간 부족, 커뮤니티 시설의 미비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초록을 품고 원을 그리는 연결도시, 초원’ 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인접으로 인해 발생한 주거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공장 철거로 확보된 산업시설 부지를 문화·여가 공간으로 재편한다.

이를 중심으로 대상지의 중앙광장과 주변 커뮤니티 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도시 전반에 연속적인 공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도시 구조를 제안한다.

